

농어촌공사 장흥,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처 훈련' 실시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5.27 15:20

김재식 전남본부장 "연습을 실천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27일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에 위치한 금산저수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를 포함하여 장흥군, 긴급동원업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처 훈련을 하였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27일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에 위치한 금산저수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를 포함하여 장흥군, 긴급동원업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처 훈련을 하였다.

이번 비상 훈련은 실제 2024년도 9월 장흥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였고 저수지 제방 외측 사면 유실 및 하류부 누수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시행하였다.

훈련 내용은 금산저수지 비상 대처계획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및 위험 상황 전파, 상황 보고, 주민 대피 및 응급 복구 등 비상 대처 단계별 계획을 통해 훈련을 시행하였다.

윤성은 지사장은 “전 직원이 100%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여 실전처럼 훈련에 참여하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체계적인 비상 대처계획 수립과 대응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훈련을 참관한 김재식 본부장은 “장흥은 작년 9월 시간당 70mm, 하루 최대 강우량 250mm 인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왔으며, 매년 기후변화로 위급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처럼 지속적인 훈련을 하여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직원들의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을 강조하였다.

공사는 전국 3400여 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점검과 비상 대처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창식 기자